

#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참사, 기억하겠습니다”

## 광주 '기억하는 모임' 오리엔테이션

잊지 않기로 다짐한 청년 10명 모여 5.18·세월호·이태원 참사 기억 공유 3월 참사현장 방문 소셜투어 예정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잊지 말자는 다짐은 또 간절해졌다. 우리는 어떻게 반복되는 현재의 참사를 기억해야 할까? 이 물음의 답을 하고자 광주에 '기억모임'이 만들어졌다.

목표는 간단하다.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친 5월 항쟁부터 세월호 참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최근 이태원 참사까지 현대사를 관통하는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고 공유하면서 반복에 진부해져버린 '잊지 말기'로 한 다짐을 되새기는 것이다.

최근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대안학교인 '청소년공간날다'에서 '기억하는 모임' 첫 만남이 진행됐다.

모임 참여자들은 오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기억하기 위한 만남을 갖는다.

커리큘럼은 △다큐멘터리 나쁜나라 △칼럼 건물붕괴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 저는 상품 생존자입니다 △연속기사 이태원 희생자 이야기 등을 감상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모임이 끝나면 오는 3월 직접 참사현장



지난달 26일 광주 북구 청소년공간날다에서 기억하는 모임의 첫 번째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

을 가는 다크투어리즘도 계획하고 있다.

'기억하는 모임'을 기획하고 구성한 모임장 문현철(29)씨는 "최근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왜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분향소, 추모제 등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광주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모임을 만들게 됐다"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더욱 깊이 있게 참사를 기억하고 풀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임 참여자 송정민(21)씨는 "세월호,

코로나19, 최근 이태원 참사까지 사회적 참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겪으면서 자란 세대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다"며 "매번 기억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번 모임을 통해 단순히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 왜 참사가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모임 참여자 김민국(34)씨는 "5·18의

정신이 잘 갖든 광주에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청년들 대상으로 기억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참여하게 됐다. 참사를 겪은 청년들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의 주제는 5·18민주화운동이었다.

20·30 세대로 구성된 모임 참여자들은 5·18을 주제로 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소년이 온다'는 중학생 동화가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하고 상무

대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도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끔찍한 폭력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은 끝나지 않는 '광주'를 겪는다.

모임장 문씨는 "5·18은 43년 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이지만, 최근 일어난 사회적 참사와 많이 닮아있다"며 "시위에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것,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는데 남은 자들이 불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짊어진다. 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연속된 트라우마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기억하는 모임의 첫 번째 주제로 정한 이유다"고 말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1980년 5월 광주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비극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소년이 온다'에서 "영혼은 우리와 같다. 한번 깨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문구는 참사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던 표현이다.

한 참석자는 "참사는 예상할 수 없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고한 시민이 죽은 5·18은 참사를 넘어 학살이다"며 "게다가 왜곡된 말이 끊임 없이 재생산돼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 5·18은 이후에 벌어진 참사 피해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일에 강제징용문제 구결하는 정부 규탄한다”

### 시민단체, 배상판결 무시 정면비판 “제3자배상안 반대... 정부 귀담아”

광주 시민사회는 최근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무시하고 있는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31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준)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욕보이는 구결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앞서 정부가 공식화한 일제강제징용 제3자배상안(행안부 산하 일

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뒤늦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며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외면한 채 일본에 마치 사정하듯이 성의 표시를 구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어 "우리 정부가 상식에서 벗어난 외교를 펼치니 일본이 구상권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는 "일본은 한국 재단이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겠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일본은 그간 식민 지배에 대한 한 차례도 불법 행위를 인정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피해 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금을 기어코 받아낼 것이다"고 제3자배상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3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무시하고 굴욕 외교를 펼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제51회 흙·사람 그리고 불

# 강진청자축제

2023. 2.23. 목 ~ 3.1. 수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